

## 議 案 檢 討 報 告

1. 發議 또는 提出者：大田直轄市長
2. 件 名：自治區間境界調整案
3. 案件要旨：別 添

위 議案에 대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

1994. 9.

內 務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鄭 鎮



自治區間境界調整案  
檢 討 報 告 書

1994. 9.

內務委員會 專門委員

## 自治區間境界調整案

# 檢 討 報 告

본 案件은 1994. 8. 2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4. 8. 24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음.

### 1. 提 案 理 由

- 行政區域은 地方行政의 基本骨格을 形成하는 重要요체일 뿐 아니라, 住民의 日常生活과 社會全般에 影響을 미치는 國家的 基本制度로서
- 現行 大田直轄市 行政區域은 1989年 1月 1日 直轄市로 昇格되면서 大德郡을 編入하여 5個 自治區로 改編, 現在에 이르고 있으나
- 直轄市 昇格時 自治區間的 境界를 기존 법정동 境界로 확정함으로써 行政區域이 일부 주민생활권과 不일치하는등 住民 生活불편요인이 되고 있어, 住民便益과 行政能率 側面에서 合理的으로 調整하고자
- 地方自治法 第4條 第2項에 의거 관련구의 議會議決을 거쳐 建議된 地域에 대하여 市議會의 意見을 들어 內務部에 建議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 2. 主 要 骨 子

## 가. 境界調整對象地域

연번	편입되는 지역	편입받는 지역	조 정 규 모		조 정 사 유
			면 적	인 구	
1	중구 산성동일부 중구 사정동일부	서 구 복수동	0.06	29명	중구 산성동·사정동 일부가 유동천 건너 서구 복수동 편에 위치하고 있어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임.
2	서구 용문동일부	중 구 증촌동	0.03	주민 미거주	서구 용문동 일부가 유동천 건너 중구 증촌동 편에 위치하고 있어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임.
3	서구 갈마동일부	유성구 봉명동	0.08	주민 미거주	서구 갈마동 일부가 갑천 건너 유성구 봉명동 편에 위치하고 있어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임.
4	서구 삼천동일부	유성구 도룡동	0.24	주민 미거주	서구 삼천동 일부가 갑천 건너 유성구 도룡동 편에 위치하고 있어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임.
5	유성구 전민동일부 유성구 탑립동일부	대덕구 신대동	0.01	주민 미거주	유성구 전민동·탑립동 일부가 갑천 건너 대덕구 신대동·와동편에 위치하고 있어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임.
		대덕구 와 동	0.07		
6	유성구 봉산동일부	대덕구 문평동	0.46	주민 미거주	유성구 봉산동 일부가 갑천 건너 대덕구 문평동 편에 위치하고 있어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임.
7	대덕구 비래동일부	동 구 가양동	0.002	주민 미거주	대덕구 비래동 일부가 동구 가양동 속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구역이 잘못된곳임. (구송유관 매설부지로서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된 연유임)
8	동구 가양동일부	대덕구 비래동	0.003	-	대덕구 비래동 소재 소라맨션아파트 단지내에 동구 가양동 토지가 일부 속해 있어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임.

## 나. 調整前後 對比表

구 별	현재 면적 (km <sup>2</sup> )	조 정 면 적 (km <sup>2</sup> )			조정후 면적 (km <sup>2</sup> )	비 고
		편 입	제 외	증 감		
계	537.13	0.955	0.955	0	537.13	
동 구	135.66	0.002	0.003	△0.001	135.659	
중 구	61.95	0.03	0.06	△0.03	61.92	
서 구	96.15	0.06	0.35	△0.29	95.86	
유 성 구	176.38	0.32	0.54	△0.22	176.16	
대 덕 구	66.99	0.543	0.002	+ 0.541	67.531	

## 3. 檢 討 意 見

本 案件은 地方自治法 第4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治區間 一部 不合理한 법정동 境界를 住民便益과 行政能率 側面에서 이를 合理的으로 調整하려는 內容임.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中區 산성동, 사정동 一部를 西區 복수동에 編入하는 內容임.

現在 복수동에 編入하려는 산성 및 사정동 一部는 유등천을 境界로 할때 하천 건너편 복수동쪽에 동떨어져 位置하고 있는 地域임.

이 地域은 원래 河川 형성시에는 現 境界이었으나, 1939年度에 유등천 河川직강공사를 實施하면서 當地域이 兩分化 되었던 것임.

따라서 區間境界를 明確히 하고 개발권역의 일치 및 行政能率性確保面에서 볼때 當地域의 境界調整은 必要하다고 보겠음.

必要性을 具體的으로 說明드리면

행정서비스면에서 現在 當地域의 行政管轄은 산성동사무소로써 다소 便利한 利用점은 있으나, 警察行政의 경우 관할은 산성파출소이지만

實際는 도마2동 파출소에서 全擔하고, 消防行政 또한 관할은 문화파출소이지만 이곳 역시 가수원파출소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면에서의 많은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地域임.

더욱이 開發與件에 있어서는 유등천을 境界로 한 산성지역은 이미 都市計劃이 完了되었고, 當地域은 未開發된 地域으로써 向後 북수동, 정림동과의 都市計劃 연계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볼때 境界調整의 必要性은 妥當하다고 보겠음.

다만, 當地域에 居住하는 住民(10세대 29명)立場에서는 오래전부터 定着되어온 交通 및 학군문제와 行政業務의 便利性, 그리고 옛부터 뿌리내려온 傳統的인 생활권의 차이로 인하여 現在 까지도 一部 住民이 反對立場을 表明하고 있는 實情임.

따라서 當地域에 대한 境界調整은 그 當爲性이 充分히 있는 만큼 이의 무리없는 調整을 위해서는 編入住民에 대한 充分한 理解說得과 함께 編入되는 地域으로의 愛着을 느낄수 있도록 道路開設등 開發事業을 통하여 소외감을 불식시켜줘야 하겠음.

둘째, 西區 용문동 一部를 中區 중촌동에 編入하는 內容임.

중촌동에 編入하려는 용문동地域은 지난 1914년에 유등천 自然狀態의 河川을 境界로 區域이 確定되었으나, 1939年 하천직강공사로 인하여 이곳이 兩分되어 現在 유등천 넘어 중촌동에 위치하게 된 것임.

當地域은 現在 河川敷地로써 住民이 未居住하고 있는 地域이며, 向後 生活權을 展望해 보아도 유등천을 境界로 해서 當然히 중촌동에 編入함이 바람직하다고 봄.

셋째, 西區 갈마동 一部를 儒城區 봉명동에 編入하는 內容임.

봉명동에 編入하려는 갈마동 역시 지난 1914년에 갑천 자연하천을 境界로 區域이 確定되었으나, 유수변경과 1939년에 實施한 하천직강공사로 인하여 현재 갑천 넘어 봉명동에 위치하게 된 것임.

當地域은 現在 나대지로써 儒城區에서 구민운동장 調整을 위해 지난 93. 5월부터 事業을 推進하고 있는 곳임.

따라서 當地域은 이미 儒城區 主管으로 土地利用을 構想하고 있음을 볼때 위치상으로도 이용도면에서 봉명동으로의 編入이 바람직하다고 봄.

넷째, 西區 삼천동 一部를 유성구 도룡동에 編入하는 內容임.

도룡동에 編入하려는 삼천동 역시 하천직강 공사로 現在 갑천을 中心으로 兩分되어 있는 地域임.

따라서 當地域 역시 河川을 境界로 하여 調整 必要性이 있는 곳이며, 특히 이곳 도룡동에 位置한 엑스포 科學公園과 연계해 볼때 갑천 라바댐등이 同一 公園권내에 包含되고 있어서 管轄 區域의 合理的統合側面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겠음.

다섯째, 儒城區 전민동과 탑립동을 大德區 신대동과 와동에 編入하는 內容임.

當地域 역시 하천직강 공사와 제방축조 등으로 갑천을 境界로 하여 兩分되어 있는 地域임.

특히 이곳 전민동과 탑립동은 시내권과의 便利한 交通이나 生活圈 주영역이 大德區 와동과 신대동이고, 現在 住民이 未居住하는 農作物 경작지역으로써 경작자 또한 대부분 大德 居民임.

따라서 當地域 역시 갑천을 境界로 하여 大德區로의 編入이 바람직하다고 봄.

여섯째, 儒城區 봉산동 一部를 大德區 문평동에 編入하는 內容임.

當地域은 옛날 구거가 물줄기의 變遷過程을 거치면서 現在의 갑천이 形成되었는데 이곳은 河川의 變形에 따라서 그 境界가 自然的으로 不合理하게 發生된 곳임.

當地域은 大田市에서 調整한 第3工團이 立地한 곳으로써 이곳은 이미 工團調整 당시 그 區劃과 법정동명을 대덕구 문평동으로 施設決定되었기 때문에 지형상으로 볼때 문평동으로의 編入은 불가피하다고 보겠음.

일곱째, 大德區 비래동 一部를 東區 가양동에 編入하는 內容임.

東區 가양동에 編入하려는 비래동 地域은 지난 80年 11月 송유관 敷地로 分割되면서 85年 가양지구 區劃整理事業 당시 開發이 制限되어 이 地域만 비래동으로 남게된 곳임.

그러나 지난 90年 2月 송유관이 移設되고 當 송유관 敷地가 용도 폐지됨에 따라서 個人들에게 모두 환원되었으나, 現在 실거주지와 공부상과의 상이로 인하여 많은 不便을 招來하고 있는 地域임.

따라서 當地域도 住民의 混線防止와 재산권 행사의 保護側面에서 早速히 境界調整이 이루어져야 할 곳이라고 봄.

끝으로 東區 가양동 一部를 大德區 비래동에 編入하는 內容임.

大德區 비래동에 編入하려는 가양동은 現在 소라맨션이 位置한 地域으로써 이는 지난 78年度에 完了한 區劃整理事業에 따라서 81年度에 당 APT를 建立하였는바, 이곳은 區劃整理事業에 따라 發生된 境界不合理 地域이 되겠음.

現在 이 地域은 단지내에서 동간 경계는 달리고 있지만, 住民 登錄공부나 各種 제세공과금이 大德區 비래동에 등재, 또는 納付되고 있고 住民意識 또한 비래동 管轄로 認識하고 있어서 當地域 역시 境界를 調整해 줌이 바람직하다고 봄.

이상 8個 地域의 境界調整案을 살펴보았듯이 今番 調整案의 對象地域은 그 境界가 河川이거나 特別한 事由로 인해 그 不合理성이 明確한 地域이니 만큼 그 調整 必要性이 있다고 보겠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미 關係法令에 따라 區議會에서 妥當하다고 綜合意見이 提示된바 있음.

다만, 앞서 境界調整 事由를 살펴보았듯이 그 內容이 대부분 河川을 境界로 한 調整임.

이와같이 주로 境界의 調整은 道路나 河川 산등선등을 따라 調整되는 경우가 一般的이라고 볼 수 있음.

그렇다고 볼때 우리 大田市도 그동안 河川의 形態變化나 各種都市開發로 인한 境界與件이 많이 變化되어 그 對象地域 또한 여러곳이 있을 것으로 봄.

물론 境界調整問題는 該當 地域民의 理解關係등에 맞물려서 그리 容易한 問題는 아니라고 봄.

그러나 장래의 市民生活 便益이나 行政의 能率性を 勘案한다면 果敢한 改善 또한 必要하다고 봄.

參考로 自治區間 境界區域調整問題는 이미 지난 92年度에 當議會에서 調整 必要性을 言及한바도 있습니다.

今番 조정외에도 여러곳의 調整對象地域이 있다고 보니다만 이는 地域住民의 意思에 따라 追後 調整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今番 對象地域에 대하여는 境界調整後에 關聯 住民들이 편입전의 生活과 比較해 조금도 不便이 없도록 해야겠고 소외감을 解消할 수

있도록 諸般與件을 調整해 줌과 동시 관련 공부정리의 早速한 마무리와 各種 행정서비스면에서의 積極的인 支援을 통하여 境界調整에 대한 信賴性を 심어주어야 하겠음.